

강기정
양향자
이용섭

‘정책공약’으로 승부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속의과정”·“조속개통” 지역발전·민간공원 방안 ‘차별화’ 속 구체성 부족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3인 공약 검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18일 시작된 가운데 세 후보들의 정책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강기정·양향자·이용섭 예비후보들은 핵심공약 뿐 아니라 도시철도2호선·도시공원 특례사업 추진방식 등에서 약간의 차별을 두고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관련한 공론화에 대해선 모두 찬성이다.

강 예비후보는 “찬반전제가 없는 공론화에 찬성하며,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교통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건설엔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듣기 위해 속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예비후보는 아예 2호선 조속개통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아 다소 차별성을 강조했다.

민간공원 대책은 세 후보 모두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미흡하다.

강 예비후보는 중앙공원(90만평)은

국가공원 지정, 이 예비후보는 민간 개발면적을 30% 이하로 최소화하고 공영개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예비후보는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 후보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승부수를 던졌다.

강 후보는 대표적으로 청년과 서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복지정책과 함께 광주를 ‘500만 광역경제권’으로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광주·전남을 하나의 ‘광역도시권’으로 묶겠다는 것으로 ‘150만에 갇힌 성장론’은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공약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시민일자리 ▲창업·중소기업 키우기 ▲대기업 지키기 ▲6대 전략산업 육성 ▲일자리 5만개 조성 ▲공공교통 전환 등이다.

양 후보는 센트럴파크와 518m 빛의 타워를 골자로 한 ‘그랜드 비전’이 핵

심공약이다. 현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간과 공원을 조성하고, 5·18을 상징하는 518m의 타워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거점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문화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한편, 빛의 타워를 송신탑으로 활용, 5G 통신 인프라로 활용하면 ‘스마트 시티’ 조성에 도움이된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후보는 경제전문가로 ‘일자리 경제시장론’을 내놨다.

빛그린산단, 도시첨단산단, 광주역, 광주공항을 연결하고 이 곳을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토록 해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빅데이터 진흥원 설립 ▲빅데이터 기반 산업도시 조성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에너지밸리 광주지역확대 ▲미래자동차 글로벌 생산기지 조성 ▲2,000억원 혁신펀드 조성 ▲광주 팁스(Tips)타운 조성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빅스포 연계 국제엑스포 개최 등 10대 주요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조기철 기자

‘복구청장’ 문상필-조오섭 후보단일화

18~20일 여론조사...선거판도 변화 전망

더불어민주당 광주 복구청장 당내 경선에 나선 문상필·조오섭 예비후보가 후보단일화에 나서 복구청장 선거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문 후보와 조 후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2곳에 의뢰해 18~20일 사흘간 두 후보를 상대로 후보적합도 조사를 실시한다. 일반 전화여론조사 방식이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높은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같은 당 김동찬 의원과 3자 단일화를 논의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김 의원은 시의원 선거로 유턴해 최근 복구5선거구에 단수공천돼 본선거로 직행하게 됐다.

문 후보와 조 후보의 단일화는 일찌감치 예상됐다. 광주 동신고 동문으로,

나란히 재선 시의원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19일, 조 후보는 27일 각각 의원직을 사퇴했다.

조 후보는 복구2(우산, 문흥1·2), 문 후보는 바로 옆 복구3(풍향, 두암1·2·3, 문화, 석곡)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전형적인 풀뿌리 지방의원으로, 학생운동권 출신이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두 선거구 인구를 더하면 14만1,000명으로, 복구 전체인구의 32%를 차지한다.

또 양자 단일화가 현실화될 경우 당내 또 다른 그룹의 단일화 여부도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4명이 경선에 나선 가운데 컷오프 결과 몇 명, 또 누가 살아 남느냐에 따라 추가 단일화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상필



조오섭

현재 민주당 복구청장 경선에서는 문·조 후보를 비롯, 문인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상훈 전 복구3의장 4파전을 치르고 있고, 민주당당에서는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복구청장 선거는 한때 10여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현재는 5명만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관료 대 정치인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 지 흥미진진한 가운데 후보간 연대 시너지와 광주역 이전, 구도심 재생 공약 등이 얼마만큼 설득력을 얻을지가 관전포인트다. /조기철 기자

■ 이색후보

“사람 사는 건강한 광주 디자인”

임미란 광주시의원 남구3선거구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다양한 경력들을 가진 정치신인들이 광역 의원에 도전장을 내밀어 화제다.

광주시의원 남구3선거구(봉선2·효덕·송암·대촌동)에 도전하는 임미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부위원장이 주인공이다. 그는 해남에서 출

생해 흥익대 건축도시대학원에서 실내설계 석사, 조선대 대학원에서 디자인경영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광주전남디자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환경디자인 전문가다.

임 예비후보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 숨쉬는 더불어 행복한 광주,



사람 사는 건강한 광주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정활동 목표로 제시했다. 임예비후보는 “그동안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꿈꾸며 내집 앞 마을 가꾸기사업, 어린이생태공원 등 친환경 도시디자인 사업에 참여했다”며 안전분야, 주민주도형 복지서비스사업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조기철 기자

“군민들의 더 나은 삶 위해 뛰겠다”

정순열 평화당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전남도의원(고흥제2선거구)에 출마한 정순열 민주당 후보가 1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고흥군 도양읍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평화당 황주홍 의원과 유영업 전국청년위원장, 김도현 전국여성위원회부위원장, 박재순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정 후보는 “군의원 등을 지내며 군민들의 안정된 삶과 올바른 행정을 위한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 왔고, 군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고흥을 위해 헌신해왔음을 자부한다”며 “함께 하는 소통과 올바른 정책제시를 기반으로 전남도와 고흥군,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등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를 위해 그는 ▲도양읍 북촌리 해



안도로와 피항용 방파제 신설 ▲출향 향우 우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인프라 구축 ▲농수축산물 판매 지원 시스템 구축 ▲안정 노후생활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농어촌개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재선 군의원들과 고흥군 번영회장, 광양·목포간 고흥나들목(IC)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 등을 지냈다. /고흥=진중언 기자



6·13 지방선거 레이다



이용섭 “미세먼지 없는 청정 광주”...4대 공약 발표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8일 시의회브리핑룸에서 ‘1차리·경제시장 2용섭의 12대 공약’ 중 열 번째인 ‘미세먼지 없는 청정광주 만들기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초미세먼지(PM2.5)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연평균 15µg/㎥이지만, 광주는 2016년 기준 23µg/㎥로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같은 미세먼지 문제해결

을 위해 정책수립부터 측정·검사·예보·조치 등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 시민실천본부’를 구성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이 예비후보는 “미세먼지는 국가차원의 대책과 함께 지자체가 주도해 최적화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건강을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전남 대학교수 51명 ‘지지선언’

전남대·조선대·호남대·광주과학기술원 등 광주지역 15개 대학 교수 51명이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광주과학기술원 김준하 교수와 전남대 신명근 교수, 조선대 유영태 교수, 호남대 전광섭 교수 등 광주지역 대학교수들은 18일 강기정 예비후보 통합경선대책본부에서 “우리 교수 51인은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책임질 수 있는 시장후보 강기정 후보를 지지하

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광주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광주에 살고 싶게 만드는 시장, 정의로운 광주 시민역사를 떠받들 수 있고, 구태와 적폐로부터 자유롭고 당당한 시장을 원한다”면서 “이러한 시장자격을 갖추고, 광주의 새 역사를 시민과 함께 써내려갈 후보가 시민 공동정부 강기정 후보임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기철 기자



김영록 “청년 일자리정책 전담 컨트롤타워 추진”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18일 청년일자리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 등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세대가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도지사가 된다면 생색내기용 선심정책이 아니라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남도청 내 ‘청년정책담당관

실’을 ‘청년일자리정책실’(가칭)로 확대 개편해 관련 업무를 직접 챙기겠다”며 “이를 위해 ‘고향사랑 적금’ 도입 및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확대 운영, 첫 국민연금 가입청년(18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사업 추진, 대학 내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확대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만채 “전남 다문화가정 지원...한글·직업 교육”

장만채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18일 “전남 다문화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전남지역 초·중·고교에는 모두 5,023명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며 “이들 학생들이 차별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지원 및 진학·진로 상담, 학업 후 취업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교육감 시절의

경험을 살려 교육과 도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장 후보는 이어 “다문화 가정이 안정되면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이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광·홍보·투자유치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해 모국방문 지원과 함께 지자체에서 최소 1년간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직업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임택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노력...복지 동구”

임택 더불어민주당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18일 광주 동구장애인복지관을 방문,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얼마 전 막을 내린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벅찼다”며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더욱 활발할 수 있는 사회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장애

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책 실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차별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 편견과 소외는 남아있다”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마련해 장애인 복지가 실현된 따뜻한 동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병내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자”

김병내 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8일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광주 5월의 정신을 계승하는데 힘을 모아라”고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 통해 “행정안전부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이 요구한 지방공휴일 지정요청을 받아들여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방공휴일은 지역별로 특별한 역사적인 날을 기념일로 지정해 공휴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의 사례가 있다”면서 “관련법 정비가 시작된 만큼 광주도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5·18 광주민화운동의 계승·발전에 힘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철 기자



윤시석 민주 장성군수 단수후보, ‘경선 청원’ 눈길

윤시석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후보가 단수 후보 공천으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에 ‘경선 청원서’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윤 후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회합과 당원들의 요구에 부응해 애초 예정했던 대로 두 후보가 아름다운 경선을 치를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중앙당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성=전일용 기자

청원서가 접수되자 중앙당은 지난 17일 제심을 인용했으며, 결국 경선을 치르게 됐다.

윤 후보는 “당원과 군민들의 분열을 막고 아름다운 경선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며 “일각에서 탈락위험을 무릅쓴 경선수용을 우려하지만, 장성군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